

##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건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동로에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장엄한 무력시위의 전투적열광을 접하며 미더운 항공특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건군절의 밤하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족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물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레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군기입장의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

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이어 열병식준비결렬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었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어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결사옹위이자 곧 조국수호이고 혁명의 전진이며 승리이라는 북무의 철학, 백승의 철학을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

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바다의 결사대, 하늘의 방패로 용맹떨치는 해군, 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도쳐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총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해나가는 군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2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건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 진정한 평화를 위해 건군의 초행길을 세계적인 군사강국건설의 활로로 이어온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국방건설사를 보여주며 기계화중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었다.

351고지와 1211고지전투에서 원추격멸의 불을 뿜던 중기를 실은 마차중대를 선두로 모리찌클중대, 반전차포중대, 평

사포중대, 땅크중대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계화상징중대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기계화상징중대들에 이어 우리 공화국 국방력의 선진성과 현대성, 강대성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무장장비들이 등장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특출한 군사전략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초대강국으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들을 위시한 정의로운 힘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상징이며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중대가 멸적의 평음을 높이 울리고 그 뒤로 포병무력이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버나갔다.

진술미싸일중대와 장거리순항미싸일중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끝없는 자부와 긍지에 넘친 관중들의 환호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병광장에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중대들이 등장하였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단호한 결단,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완성이라는 특대사건으로 우리 국가의 국위와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를 목청껏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

를 보내시었다.

공화국 혁명무력의 장구하고도 성스러운 역사를 가장 빛나는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운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령장인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대한 주체조선의 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질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체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하시였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떨치며 강군건설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시어 조국의 영원한 안전과 미래를 확신하는 군지휘관들의 끝없는 걱정이 세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장은 창군초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전투적행로에서 조국의 존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혁명의 무장으로 담보하며 백승의 무훈을 새겨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에 대한 크나큰 자부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회장에 들어서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창군의 함성이 리져올랐던 그날로부터 영광스러운 전통과 빛나는 승리, 찬연한 영예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인민군대의 자랑스런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역센 숨결을 무적의 군력과 값비싼 희생으로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어온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송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인 우리 군대가

철두철미 혁명의 제1세대들이 총대에 재웠던 붉은 녀과 송고한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변함없이 계승하여 우리 군대특유의 불가항력으로 강대한 조국과 인민의 권위와 위대함을 빛나게 수호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용진해온 한없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고 걸어갈 총성의 천만리에 대한 혁명적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게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열정에 넉넉 연설에 접한 군장령들은 우리 인민군대 특유의 성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위한 군력강화의 길에서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령장과 무적강군의 핵심골간들의 혈연적유대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연회장에 송엄히 펼쳐졌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여주신 육친의 뜨거운 정과 하늘같은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온대도 김정은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며 국권수호와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적 전역들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인민적전군을 무적의 총대로 억척같이 담보함에 일심분투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단위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을 단상에 높이 모시고 성대한 열병식으로 혁명강군의 기세찬 위엄과 무진한 군사적강세를 온 세상에 과시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열병광장에서 꿈만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열병부대 장병들은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단력,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강군건설의 새로운 장

을 힘차게 열어나가시며 조선인민군을 견결한 혁명정신과 백승의 투지를 만장약한 정의의 역센 주먹으로,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세기에 떠올려주신 회세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함, 높은 명예와 찬란한 앞날을 더욱 명확하게 그려주는 청사에 특기할 정치군사적사변으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예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열병광장에 굽이친 위대한 무장력의 도도한 격류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혁명의 최전방에서 영광된 공화국의 승리를

고귀한 피와 무수한 위훈으로 수놓아온 우리 군대의 불멸의 영웅성과 전투적기개, 절대적합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강자가 되어야 존엄과 명예도 떨칠수 있고 오직 승리로써만 자기 위업의 정당성도 증명할수 있는 현 세계에서 강군이라는 반석위에 서지 못한 번영의 탑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폭제를 결단코 힘으로 제압평정해야 할 조선혁명의 특수성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오늘에 만족함이 없이 지나온 력사와 대비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해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데서 그 누구도 감담해낼수 없는 혁명의 전위로서의 중임을 맡고있는 조선인민군이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의 명예를 즐기차게 떨치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전군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참가자들이 터치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총성의 퇴성으로 2월의 하늘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퍼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에 절대충성하며 성스러운 조국의 영원한 안전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통성발전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존엄을 위하여 충성과 애국의 군기들을 더 높이 추켜들고 자주강국의 무쇠방패, 억척의 기둥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차게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의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조국과 혁명, 인민보위의 전초선을 지켜 분투하는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충심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뜻깊은 건군절기념행사에 불려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정을

거둬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것의 첫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이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를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무장으로 떠받들어온 혁명군대의 영광된 75년사를 백년, 천년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언제나 당과 조국,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온갖 도전을

을 용감히 맞받아 자기의 성스러운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 인민들과 하신 약속

뜻깊은 2월의 하루하루가 흐르고 있다.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또 누구를 만나보아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에 넘쳐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 오늘도 찬탄심장마다 피어 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에 넘쳐 있다. 오늘도 찬탄심장마다 피어 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에 넘쳐 있다. 오늘도 찬탄심장마다 피어 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에 넘쳐 있다.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행복이 바로 그 길에 있었다.

오직 웃음만을 안고 자라날 아이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 길에 있었다.

그때 설맞이공연에 참가했던 평양학생소년궁전의 한 교원은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속 초소어로의 현시찰소식에 접한 우리의 귀에는 애들아,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 마음껏 꿈을 꾸고 희망의 노래를 펼쳐라, 이 아버지가 너희들의 웃음,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미래를 총대로 굳건히 지켜줄테니 한 점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과 심장으로 주고받으신 약속을 지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다.

때로는 어깨로 지쳐내리는 야전차들 때미시며 이 나라의 높은 령이란 평은 다 넘어 오시고 때로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 땅의 험한 길이란 길은 다 헤치시며 인민들과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과 장창한 미래를 위해 위대한 전진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아버지.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길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

많은 사람의 약속들이 끊임 없이 맺어졌고 철회하지 지켜졌다.

지금도 수십년전 어느날 평양시의 새로 입사한 일부 주민세대들에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실태와 그 전후사연을 보고받으시고 그리도 절절히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되새겨진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어머니인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인민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가? ...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하기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무말없는 청까지도 심중에 새겨두시었다가 태종이와 흥단이라고 정을 담아 뜻을 담아 지어 주시었다 나라의 천사만사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과 한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려 명절날, 일요일의 휴식조차 잊고 불철주야 로고를 바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인민행렬차의 기적 속담으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속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활속에 연은 경험과 교훈을 담고있는것으로 오늘날 인간의 활동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굳어지고 공고화되어 널리 쓰이던 속담들도 오늘날 우리 생활에 맞지 않아 옛말로만 남아있게 되었음을 나는 화력-서평양행 무궤도전차에서 주고받은 로인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슴벅차게 절감하게 되었다.

자랑이라도 하듯 경루동에서 사는 자식들의 집을 다섯번째로 찾아가는 로인내의 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치는 거리와 건물들을 내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몇년새 정말 많이도 변했지요. 평양의 거리들이...》

《천지개벽이지.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엔 1년도 안되어서 새 거리, 새 건축물이 일떠서니 이젠 그 속담도 맞지 않아. 낡았어.》

《정말 그래요. 그 속담도 이제 고쳐야겠습다.》

《허허허...》

깊은 감회에 젖은 로인내

블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넉넉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전진길을 끝없이 이어가고계신다.

9년전 4월 어느날 김정은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속이 완공되어 종공식을 눈앞에 두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서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공장일꾼들에게 김정은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속을 새로 건설하여 주겠다고 한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 공장 로동계급과 하신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오늘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에서 인민은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넉넉은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어났으며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행복과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한 명구

**방문기**

**영원한 사랑의 첫줄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뜨겁게 이어져 있는 공장이다.

오늘도 공장에서는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후대사랑속에 맞닿고 영양가 높은 첫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을 때 공장장님께서 《첫제품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들었다.》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열화같은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풍단물을 실은 차는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가닿았다.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풍단물직장, 첫제품직장, 애기젓가루직장 등 공장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애기젓가루직장 현

장의 실정에 맞게 풍단물을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로부터 얼마후 첫 제품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어 송수화기를 드신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흥에 겨워 부르시었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차례진 맛좋은 풍단물은 이렇게 태어났다.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아서 우리들이 어머니를 더 불러내려다 어머니들의 얼굴에만은 그들이 지게 해서 는 안된다. 어린이들에게 영양식료품을 공급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총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열화같은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풍단물을 실은 차는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가닿았다.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풍단물직장, 첫제품직장, 애기젓가루직장 등 공장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애기젓가루직장 현

장에서 김은혜작업반장의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의 조항들을 되새겨볼 때면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입니다.》

진정 그러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채택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육아법이 채택되어 모든 아이들이 첫제품을 무상으로 정상공급받게 된 경이적인 현실, 발달적인 방역위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애기젓가루와 암가루가 차례진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그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던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당과 국가의 최우선정책으로,

최고의 속원으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녕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들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신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후대사랑의 첫줄기를 시련속에서도, 폭풍속에서도 멈춤을 모르고 출기차게 흐르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을 높이 올리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면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전진하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본사기자 김진혁



《로혜란어머니, 어머니가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심은 소나무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적지를 찾은 답사자들도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역세게 뿌리내리고 즐기며 뻗어나가는 소나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답니다.》

며칠전 백두산밀영고향집 관리소에서 걸어온 전화를 받으며 중구류성동 1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로혜란녀성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처럼 반가운 소식이 또 어디에 있으리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통하는 끝났으나 그는 한동안 울적일념을 몰랐다.

벌써 여러해가 흘렀다. 해발 800m이상에서 자랄수 없던 소나무가 고산지대인 백두산지구에 뿌리내리기까지의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그의 눈앞에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언제부러졌던가, 백두산지구에 소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제105(2016)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눈보라를 헤치고 삼지연군(당시)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혁명활동소식에 접한 로혜란녀성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람들은 흔히 사업과 생활과정에 속담을 많이 쓰며 속담으로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속담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활속에 연은 경험과 교훈을 담고있는것으로 오늘날 인간의 활동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굳어지고 공고화되어 널리 쓰이던 속담들도 오늘날 우리 생활에 맞지 않아 옛말로만 남아있게 되었음을 나는 화력-서평양행 무궤도전차에서 주고받은 로인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슴벅차게 절감하게 되었다.

자랑이라도 하듯 경루동에서 사는 자식들의 집을 다섯번째로 찾아가는 로인내의 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치는 거리와 건물들을 내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몇년새 정말 많이도 변했지요. 평양의 거리들이...》

《천지개벽이지.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엔 1년도 안되어서 새 거리, 새 건축물이 일떠서니 이젠 그 속담도 맞지 않아. 낡았어.》

《정말 그래요. 그 속담도 이제 고쳐야겠습다.》

《허허허...》

깊은 감회에 젖은 로인내

## 수필 옛말로만 되어버린 속담을 두고

습을 펼쳐보이며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던!

공화국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워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은 이 땅에 새로운 건설속도, 건설신화를 안아왔다.

불과 몇달전에 건설형성안으로 보았던 거리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오늘과 매일이 다르게 비스무리하게 속도로 일떠섰을 때 우리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다.

어찌 수도 평양뿐이라! 저기 인민의 리상향이 펼쳐진 혁명의 성지 삼지연에서도, 사회주의농촌진흥의 변혁적실체로 훌륭히 일떠선 려포농실생장에도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 사회주의문명

을 자부하는 건축물마다에도 세인을 놀래우는 건설속도와 신화가 맥동되고있다.

이제는 그 속도에 점차 익숙되어 사람들은 확연히 자태를 드러낸 화성거리도 머지않아 멋쟁이거리로, 회한한 거리로 일떠설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당의 구상과 결집을 무조건

뜻밖에 예기치못한 보건의 기속에서 어머니들의 고충을 헤아려준 어버이사랑에 의해 이 나라 한결 북편의 산간오지로부터 분계연선의 농촌마을, 동서해의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애기젓가루와 암가루가 젓줄기처럼 가닿았으니 어머니들의 품속에선 멀고가까운 자식이 따로 없다는것을 실생활로 체험한 이 나라 인민에게는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불베의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민방에 펼쳐가는 공화국의 정한 기상이고 언제나 백두산을 가슴속에 안고 이 세상 끝까지 갈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공화국인민의 강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불같은 애국충정의 마음은 백두의 소나무처럼 줄기차고 억세며 이 세상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것이다.

오늘도 로혜란녀성의 마음은 백두산지구에 변함없이 달리고있다.

평범한 공민의 한사람인 자기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 자라는 가장 귀중한 정호를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백두대지에 애국충정의 신스러운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흥범식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백두대지에 뿌리내린 조선의 국수-소나무 >>>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혁명적의무이라고 하시었다는 데 누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로혜란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를 보다 훌륭하게 꾸리는데 무엇인가 이바지하고싶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조선의 국수로 빛나는 소나무를 백두성지에서 자랄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사시장철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역세게 자라는 소나무,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그대로 비껴가는 소나무야말로 혁명의 성산이 높이 솟아있는 백두성지와는 신동호도 잘 어울린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주변에 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하자.)

백두산지구에 소나무를 뿌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것은 백두성지에 뿌리내린 푸르싱싱한 소나무들을 보시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허나 백두의 혹한속에서 어린 소나무들이 뿌리내리게 한다는것은 생각했던것처럼 쉽지 않았다.

그때를 추억하며 로혜란녀성은 말한다.

《우리가 심은 소나무가 운에서 첫겨울을 이겨낸 소나무들은 몇그루밖에 되지 않았습다. 어쩌나 손맥이 풀리던지... 강추위를 이겨내지 못한 어린 소나무들을 품에 안고 막 안타까와 울었습니다.》

그 순간 로혜란녀성의 눈앞에 무엇이 어려오는 영상이 있었다.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그 자그마한 소행을 소중히 여기시며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을 받

고 금수산태양궁전지구 수목원에 양묘장을 꾸리고 빨리 자라면서 경제가치가 올라가면 나무모를 생산정껏 심고 가꾸면서 수많은 나무모들을 새로 꾸러지는 어느한 양묘장에 보내준 것이다.

그런데 품엔 알았으랴. 어느해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가 보내온 참대버나나무들을 품소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하시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은 참다운 애국심의 발현이고 그 사업에서 보람을 느낄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당이 바라는 진짜 애국자!

절세 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서 힘과 용기를 배배하며 로혜란녀성은 나약해지려

는 마음을 다시금 굳게 다잡았다.

(내 기어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서깊은 고향 백두성지를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로 더욱 빛내리라.)

또다시 고산어린 나날들이 흘렀다. 그는 전봉가들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애원 소나무들이 추위에 견딜수 있도록 보호막도 씌워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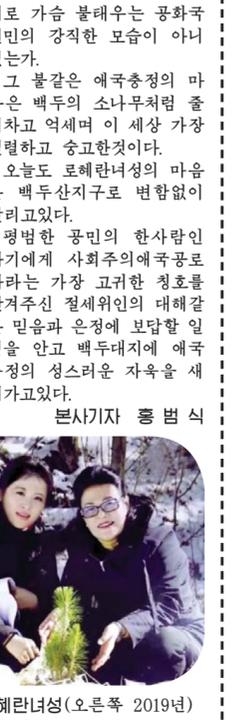
백두산지구의 흙을 평양으로 날라가고 양묘장에서 소나무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해 바쳐간 무수한 낮과 밤들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으랴.

이렇듯 품들어 자라는 소나무들이 끝끝내 백두고산지대에 적응되어 푸르싱싱 자라고있더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으랴.

돌우에 꽃을 피우는것이 정성이리하면 고산지대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그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의 결정체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못잊어 그녀는 로혜란녀성만이 아닌 이 나라 인민의 정은 이렇듯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백두성지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조선의 국수-소나무!



로혜란녀성(오른쪽 2019년)

# 사랑의 집대문은 항상 열려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차넘치는 지금 우리 겨레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평생이 어려와 추구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천만교생을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떠나 존엄높은 공화국의 오늘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 수 있으랴.

얼마나 위대한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페루로 절감하고 있는 수천만 아들딸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식술, 한피를 들은 뜻깊은 2월이 다 해주신 해외동포들도 있다.

해외동포들을 위한 일이 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 고 싶다고, 자신께서는 해외동 포들이 건강할 몸으로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일 기쁘고 앓는다는 말을 들 을 때 제일 괴롭다고 늘 외우 시던 위대한 장군님.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 안아 보살펴 주 시 지켜주시는 이역의 아들 딸들은 뜻깊은 2월이 더불어 친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없는 격정속에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다.

망국노의 설음이 삼천리강 도를 무겁게 짓누르던 퍼눈 물의 그 세월 얼음판에 떨어 진 새알파도 같이 차디찬 이 국의 대지에 뿌려져 인간이하 의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당해 야 했던 해외동포들과 그 후

손들이었다. 이 력사의 수난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 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외동포 들을 따듯이 품에 안아 곁을 곁을 손잡아 이끌어주셨다. 그이께서는 바람세찬 이역 땅에서 그 어떤 보수도 명예 도 바람이 없이 오직 한마음 조국의 부강번영과 해외교포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 하고 있는 동포들을 아끼고 믿어주시며 온갖 특혜를 다 베풀어주셨다.

어머니조국에 와보고싶어하 는 동포들의 소원을 하루빨 리 풀어주어야 한다고, 그들이 이국땅에서 고생을 해온것 을 생각하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성대한 환영모임도 조직해주시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뵈도록 하는 최상의 특전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모두를 한식술로 여기시며 조국을 본 가집이나 만형제 집으로 알고 올 때에는 부인들도 꼭 데 리고 오라고 다정히 이르고 헤여질 때면 잘 가라는 말보 다 잘 갔다오라고 인사하고 싶 다고 하시며 석별의 아쉬움을 금치 못하셨던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토록 인자하고 자애로운분 이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만 나뵈을 때마다 이역의 아들 딸들은 친아버지에게 응서부 리듯 스스로없이 안겨들며 저 마다 자랑거리도, 가슴깊이 품고있던 격정거리도 숨김없이 이야기군 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 군을 하고있던 그 엄혹한 시 기에도 자연재해로 하여 동포 들이 당한 불상사를 두고 누 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사랑 의 위문금도 보내주시고 동 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과 전통을 그대로 지켜 가기를 변종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보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해외 교포운동사에 위대한 전설로 수놓아져 동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각 별한 사랑을 기울이신 아버 의 혈연의 정은 이역의 아들딸 들을 성스러운 예국의 길로 떠 밀어준 원동력이었으며 그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 겨 행복한 삶을 누리었고 영생 의 언덕에 올랐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해외교포운동의 탁월한 명도자이시기 전에 멀 리 둔 자식생각으로 시름놓지 못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에 가장이시었다고, 그의 품속 에서 자기들이 받아안은 사랑 과 온정을 천만자루의 붓이 닳도록 쓴대도 못다 쓸것이라고 눈물겹게 보이셨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람은 오 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한식술이라고 하시며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하 커침, 축진, 친필서한을 거듭 거듭 보내주시고 뜨겁게 품 에 안아 조국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국가적행사에도 불 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해와 같은 은총을 해외동 포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가 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 의에서 해외동포연익옹호법이 채택된것도 해외동포들이 열 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살 고있는가를 응변으로 보여주

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조국 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존엄 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려 가는 우리의 해외동포들처럼 북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화목한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믿고 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을 영원히 한식술로 품어안고 보 살려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 따뜻한 사랑의 집이다.

그 사랑의 집대문은 머나먼 이역의 동포들을 어서 오라 부르며 언제나 열려있었다. 본사기자 전영민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설맞이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중에서

## 조국이 강하여 총련도 강하다

총련과 제일동포 들에게는 언제나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머니조국의 따스한 손길 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주체 81(1992)년 4월 25일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혁명부력의 최고수위 에 높이 모신 후 처음으로 뜻깊은 열병식이 성대히 거 행되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리 는 가운데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공화국으 로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총 련에서 온 참관단 도 있었다.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주체 81(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중앙의 한 일군으 로부터 내외반동 들의 악랄한 반공 화국, 반총련책동 으로 말미암아 총 련에서 동포군중을 조직의 두리에 굳 게 묶어세우고 애국사업에 불려일으키는데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것을 료해하게 되시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일

군들에게 오는 4월에 조국에 서 열병식을 하는데 총련에 서도 참관단을 조직해가고 와서 보고 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총련일군은 그의 크나큰 은정에 감격에 젖은 목소 리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올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총련에서는 전례없는 규모 의 참관단을 조직하여 조국 에 보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 적의의를 가지는 열병식을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 에서는 총련에서 참관단성 원들이 열병식을 더 잘 볼수 있게 해주도록 극진히 마음쓰 시었다.

그러하여 참관단성원들은 4월 25일 아침 남먼저 열병 식이 진행될 김일성광장 초대 석에 초대되었다.

난생처음 그처럼 큰 규모 의 열병식을 보게 된 참관단 성원들의 감회는 남달리 컸 으며 뜨거운 총동 또한 이루 형 언할수 없이 뜨거웠다.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 에게 영광이 있으리》

은 천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엄에 찬 그 음성!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수령장사용위의 정예대로로, 사회주의위업을 옹위하는 역 척의 지지점, 척후대로로서의 위용을 떨치며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일 당백군인들의 튼튼한 모습! 지축을 울리고 하늘을 썰 며 나아가는 최신식군사기 술 장비들!

참관단성원들은 열병식을 보 면서 커다란 충동을 받았다. 머나먼 이역땅에서 조국의 위대성, 강대성을 말로만 전 해본던 그들의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올랐다. 열병식이 있은지 3일이 지 난 날 저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 참관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었다. 참관단성원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항일의 로투사들과 인민군지휘관들이 와있었다. 참관단성원들은 성대한 열 병식장에서 무적장군의 위용 을 남김없이 보여준 인민군지 휘관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 들과 뜻을 같이하기를 나누 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동무들이 이번에 진행된 열 병식을 보아서 알겠지만 우 리 조국에는 강력한 무장력 이 있다고,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받은 당 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 최 신군사기술로 장비된 강철의 군대라고 힘주어 교시하시 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에 강한 무 장력이 없으면 내외원수들이 총련을 깔고계 되며 탄압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 리 조국은 당과 수령의 두리 에 일심단결된 인민과 함께 강위력한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 고 온 나라가 요새화되었기때 문에 첩벽이라고, 그러니 총 련도 첩벽이라고 말할수 있다 고 하시었다.

참관단성원들이 받아안은 격정은 참으로 컸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힘이 없 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 요당해야 했던 수난의 그 세 월 제일동포들이 당한 민족적 멸시와 재난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나 오늘은 세인이 찬양하 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 되 어 높은 존엄과 권리를 당당 히 행사하며 살고있으니 그 것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주의조국이 있기때문이다.

진정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마음껏 꽃피 나며 불패의 기복, 일심단결 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제일동포들의 운명 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진정 한 어머니입니다.

조국이 있어 총련이 있고 조국이 첩벽이 총련도 첩 벽이다.

오늘 어머니조국은 회세의 위인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절대적힘을 비축 한 불패의 강국으로 세계에 위용을 떨치고있다.

총련도 더욱 강화되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 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 고 위대한 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야하는 아버지조국을 우 리러 보면서 신심드높이 총련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발걸음을 더 욱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수기 대양의 믿음은 내 신념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비전향장기 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라 고 존경하고 내세워주곤 한다. 그 고귀한 부름을 들을 때 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높은 언덕에 올라설수 있었 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 하게 되고 절세위인들에 대 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에 가슴은 뜨겁게 젖어든다.

사람이 믿는것이 없다면 정 의와 애국의 길이라고 하여도 갈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바 잘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지옥같은 감방안에서 살인적 인 고문과 전향강요를 당해 온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념이 없다면 한순간도 버 러내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는 우리의 위엄은 가장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척의 믿음을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때문에 온갖 악형과 곤질인 유혹을 이겨내고 끝 끝내 승리하여 공화국의 품 에 안길수 있었다.

나의 고향은 남조선이다. 공화국에는 혈육 한점 없다. 그런 내가 하루이틀도 아 닌 수심전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형속에서도 랑후대공화국을 마음속에 품어안고 수령과 조국을 위 하여 끝까지 신념을 지켜싸 울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 에 대한 끝없는 숭배와 매 후,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 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믿 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내가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대천감옥에 있을 때였다. 하 루는 눈들이 나를 불러내어 지껄었다.

《아직도 북에 대한 미련 을 버리지 않았어? 너의 고향은 여기 남북이냐. 네가 전향만 하면 집도 주고 돈 도 다 주겠다. 전향을 안하 면 난 끝장이다.》

나는 눈들의 상통을 쏘아 보며 내뱉었다.

《나는 공화국땅을 밟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고향, 나의 조국은 아버지수령님 계시는 공화국이다. 목숨을 바칠지언정 우리 수령님과 어머니조국에 대한 신념을 절대로 버릴수 없다.》

그날 나는 눈들에게 죽도 록 몽둥이고문을 받고 반수 점이 되어 먹방에 실려들어왔다. 나의 반친 눈들은 그후 에도 전기고문, 물고문, 몽둥 이고문을 틀어젖었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남조선에서 서서히 내가 진정한 조국을 알게 되고 수령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

념을 간직하게 된것은 지리 산인민유격대시절이었다. 그때 우리 북쪽이 있던 공 화국출신대원들은 나에게 해 방후 5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보내 줄것같은 나 날들에 대해 자주 들려주곤 하였다. 안락의 땅에서 어려 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인 민이 주인된 그런 세상이 있 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조국은 단순회 조상의 무 덤이 있는 나사자란 땅이 아 니다. 참된 삶이 꽃피고나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세상이 바로 조국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꿈같은 세상을 마련해주고 꽃피워주시는 절세위인의 품이 나의 진정한 고향. 조국으로 심장속깊 이 간직되게 되었다.

지금도 청주보안감호소 에 갇혀있을 때의 일을 잊 을수 없다. 그때 나는 감 방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 르며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곤 하였다. 교 형리들은 우리가 자기 수령 을 따른다고 해서 끌어내다 갖은 고문을 해서였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원수들의 살 인고문에 항거하여 단식투쟁 을 들어갔다.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따른것이 무슨 죄 로 되는가?》, 《우리를 당 장 석방하라!》

투쟁이 계속되자 눈들은 우 리에게 살인적인 강제급식을 시켰다. 그로 하여 여러 동지 들이 피를 쏟으며 목숨을 잃 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 시각에도 나에게 힘을 준것 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었다.

원수들이 나의 사상과 신 념을 들러세워보려고 기습을 부릴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신념을 굳세게 버리고 의지를 더 욱 가다듬었다.

내가 것처럼 바라던 소 원이 드디어 성취되는 꿈 같은 그날은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하한 동 지적리의 리와 하늘같은 은덕 으로 한성토록 그리던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 기게 된것이다.

위 대 한 장군님께서 는 남조선에서 《숨 쉬는 화석》으로 불려워오던 우리 비전향장기수 들을 신념과 의



비전향장기수 고광인

## 지배와 굴종, 범죄의 역사는 감출수 없다

### 남조선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 미군정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렁이에 밀어넣고는 저들이 이 파국을 《해소》하는 《원조자》로 나서서 《원조》의 울가미로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지배하려 한것이 미국이 남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내세 운 음흉한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에 식량과 물가에 대한 통제를 폐지시 켜 남조선경제전반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는 충격적 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물가통제의 폐지와 함께 시 장의 쌀값은 천정부지 급속 스럽게 뛰어나오다가 1945년 12월에 가서는 시장에서 쌀 을 구경할수도 없게 되어 무 서운 쌀기근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으며 노동자, 사무원 등 도시근로자들은 말할것도 없 고 돈이 궁하여 쌀을 일제기 팔아치운 농촌의 소작농들도 기아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미제와 그와 결탁한 모리 관상배들의 작간으로 쌀기근

사태가 빚어지고 쌀값이 뛰 어오르자 다른 물가도 덩달 아 놀라운 오름세를 보이었 고 주민들의 생활은 전면적 으로 련락되어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향을 찌낸 군정예산을 대충단안을 위한 군사경철비, 미군의 방대한 점령비용을 충당하는데 무제 한 지출하였다. 또한 《조선 은행권》을 람발하여 인플레이 를 가속화시켰다. 하여 물가 지수와 임금주사사이의 간격 은 급격히 벌어져 1946년 3월 에 이르러 남조선의 물가지수 는 일제때인 1936년에 비하여 160배를 기록하였고 그 기간 에 임금지수는 물가지수의 4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다. 간악한 미국은 남조선의 경제생활과 인민생활을 수습 할수 없는 혼란속에 몰아넣 고는 이 경제파국을 해 결하는 《원조자》로 자처해 나갔다. 1946년에 미국무부는 남조

시달리게 되었다. 미군정이 출어 발표된 통 계에 의하더라도 1946년 1월 말현재 남조선의 실업자수 는 105만여명에 달하였으 며 농민들도 고물소작료와 가림 잡세로 계속 뜯기우는데다가 1946년부터 강제공출이 악착 같이 강행되어 대중적기아상 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의 한 신문은 《조선 인은 현재 일제시대에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곤난에 빠 져있다. ...하루 배급미가 겨 우 한홉이라는 일도 아직 없 어지지 못한 일이다.》고 통 탄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미국《경제원조협정》 체결반대투쟁에 대한 출판물보도자료

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해 《3대원칙》이니, 《5대핵심추진과제》니 하는 따위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놓고 《흡수 통일》야망은 포퓰리즘적 추 구한것도, 그 무슨 《표현 의 자유》를 운운하며 형식 상으로나마 제정한 《대북페 라살포금지법》을 폐기하겠 다고 기업을 호턴것도, 있 지도 않는 《북인권》문제 를 떠들며 반공화국《인권》모 락소동에 광분해온것도 다 틀어닌 《통일부》이다. 지어 해외에 나가서까지 윤석열역도의 황당하기 짝 이 없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구걸했으나 《2022년 국방백서》초안에 공화국을 《적》으로 조이박 은 군부것들을 두둔하는 해 피한 나발까지 서슴없이 불 려였다.

대결에 환장한자에서 나 라나는 일종의 발작중세라 하겠다. 역대로 남조선의 《통일 부》라는것이 반공화국대결 과 불신, 적대감조성에 앞장 서왔다것은 너무도 잘 알 려져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의 등 출과 함께 권병세가 《통일 부》수장자리에 들어앉은 이 후 《통일부》것들의 대결망

## 최악으로 얼룩진 대결광의 낙두리

결에 이골이 난 권병세파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다. 역대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치고 반공화국대결에 매달리다가 비참한 운명을 당하지 않은자가 없다. 권병세도 지금 그 범죄 와 파국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가 후과를 감당하지도 못할 망발을 저 누어놓 을수록 죄라는 더 늘어나고 치르어야 할 때가 역시 그만큼 커질뿐이다. 한 광일

